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과 함의*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귀농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을 고찰하였다. 2006년 이후 발표된 것들 가운데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연구물 8편을 분석하였다. 귀농인의 경제 활동을 농업생산 활동, 농산물 가공 및 농촌관광 등 농업 연관 농외소득 활동, 농업과 무관한 겸업활동 등으로 분류하였다. 사회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조직 활동, 학습 활동, 문화여가 활동, 지역 공동체 안에서 주민과의 일상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상호작용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런 활동들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귀농인들은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고찰하였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 가의 농업 경영 규모는 대부분 소농이므로 귀농 가구의 다각적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귀농 가구의 다각적 경제활동은 농촌 지역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귀농인의 경제 활동은 가구의 생계전략뿐만 아니라 자조적 지역사회 발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활동이다. 넷째, 귀농인의 지역사회 참여는 농촌 지역의 사회자본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지만 단기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여성 귀농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연결망 편입은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주요어: 귀농, 지역사회, 농촌

* 이 글은 한국농어촌관광학회 2014년 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고친 것이다.

1. 서론

그 규모를 감안하면, 귀농·귀촌¹⁾만큼 단기간에 많은 관심을 받은 인구가동 현상은 없었다. 도시민, 정부, 학계 등 입장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구체적 관심사는 다양하겠지만, '현재의 귀농 추세가 유지된다면 그것이 농촌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인가?'라는 물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농촌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면 일자리 감소와 공공 및 상업적 생활 서비스 공급이 축소되고, 그렇게 악화된 주민 삶의 질 여건은 다시 인구 유출을 부채질하거나 유입을 가로막는 악순환 구조'(김정섭·김광수, 2011: 270)가 농촌 문제의 정곡(正鵠)인데, 귀농·귀촌은 그것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귀농 인구가 급증한 것을 두고 방향성 있는 변화의 흐름, 즉 트렌드(trend)가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통계적 차원에서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²⁾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농 가구 수 1만 호를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급증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감소할 것이라 단언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귀농·귀촌 인구 규모 자체가 현재의 농촌 인구 고령화 및 감소 추세를 역전시킬 만

1) 이 글에서 '귀농'은 도시 거주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귀촌'은 귀농을 포함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모든 형태의 인구가동이라고 정의한다. 즉, 귀농은 귀촌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귀촌 통계를 산출하려 수행하는 행정 조사에서 쓰는 '귀촌'의 정의를 따르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로서 회사원, 교사 등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라고 '귀촌인'을 정의한 바 있다(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 2014: 2).

2) 정부 발표(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 2014)에 따르면 귀농 가구 수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각각 5,405호, 10,075호, 11,220호, 10,923호를 기록했다. 귀농 가구원 수는 같은 시기에 9,597명, 17,645명, 19,657명, 18,825명을 기록했다. 2011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3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큼 큰 것도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토박이 주민과는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에 있는 도시민들이 유입되는 것이므로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 역량(capacity)에 보탬이 된다는 견해가 있지만,³⁾ 귀농·귀촌으로 인한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구성 변화가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낳을 만큼 양적(量的)으로 유의미한(significant)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에서 ‘귀농이 농촌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인가?’라고 물음을 던진 것은, 귀농이라는 사회 현상이 농촌 지역의 변화와 구성적으로 연루되어 있다고 믿은 때문이 아니다. 대신에, 귀농인들의 실천적 지향⁴⁾과 그것을 실현하려는 사회·경제 활동이 농촌 지역사회에 질적(質的)으로 유의미한(meaningful) 변화의 단초(端初)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긴 때문이다. 귀농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귀농 직후의 사회·경제 활동 경험과 그 의미가 향후 생애사(生涯史)에서 이루어질 의사결정의 맥락(context)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귀농인의 경험과 귀농인 스스로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연구자나 정책 입안자에게도 중요한 과제다. ‘귀농·귀촌 인

-
- 3) 나는 그런 견해를 ‘자금 유입론’과 ‘혁신적 인적 자본 유입론’이라고 이름 붙이고 비평한 적이 있다. ‘자금 유입론’에 대한 비평의 요점은, 베이비부머들이 비교적 많은 재정적 자산을 갖고 농촌으로 이주하더라도, 그들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전원생활만을 향유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귀농인·귀촌인의 자산이 농촌 지역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투자될 때에만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적 인적 자본 유입론’은 귀농인 또는 귀촌인이 농촌관광과 같이 농촌 지역사회 외부의 사람들을 고객으로 삼는 경제활동 부문에 필요한 비즈니스 역량을 갖추었으므로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리가 있지만, 모든 귀농인과 귀촌인이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역량을 갖추었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혁신적 인적 자본 유입론’의 근거로 거론되는 사례들도 귀농인 혹은 귀촌인의 개인적 역량으로만 이론 성취가 아니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상당하다. 이에 관한 논의로는, 소략하지만, 김정섭·성주인·마상진·임지은(2012: 26-30)을 참고.
- 4) 청장년층 귀농인들 가운데에서 더러 관찰할 수 있듯이, 그 실천적 지향을 일종의 규제적 이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

구를 경제적 유인(誘因)에 따라 거주지 이전을 선택하는 원자화된 개인(atomized individual)으로만 간주'(김정섭, 2009: 544)할 때, 귀농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 계기, 맥락 등은 가볍게 무시된다. 이때 귀농인은 '서사적(narrative) 투사 속에서 재구성되는 자아를 지닌 주체'(김영민, 2011: 42)⁵⁾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정책은 심층적 이해가 아니라 표피적 가정에 기초하게 된다. 귀농인의 정착 과정 경험에 대한 해석학적(hermeneutical) 이해가 필요한 이유다.⁶⁾

이 연구의 목적은 귀농인들의 다종다양(多種多樣)한 사회·경제 활동을 이해하고, 그 실천들이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착 과정에서 일어나는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 경험을 다룬 질적 조사 연구들로부터 자료들을 어떻게 추출하고 분석했는지를 밝힌다. 그리고 귀농과 관련된 질적 조사 연구에 인용된 면담 자료들을 분석한다. 귀농인들의 사회·경제 활동들을 분류하고, 그것들이 수행되는 사회적 맥락과 귀농인 스스로 부여하는 의미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귀농이라는 사회 현상이 내포한 함의를 정리하면서 글을 맺을 것이다.

5) "인간의 자아는 일종의 서사다. 아니, 서사적 투사 속에서 재구성된다. 사실 주체는 세상과 이웃을 대하고 겪으면서 (재)구성되는 서사적 통일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가 좋고 편하다."(김영민, 2011: 42)

6) 근년에 여러 연구자들이 귀농과 관련하여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를 수행한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이 글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귀농인과의 면담 내용을 인용한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형식의 질적 연구물은 모두 8편이다. 그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귀농 관련 질적 조사 연구'의 대부분일 것이다.

2. 자료 및 분석 방법

귀농인들의 사회·경제 활동이 전개되는 다양한 양상을 포괄적으로 포착하여 기술(記述)하는 것이 이 분석의 일차적 목적이다. 그러므로 수집한 자료, 즉 ‘귀농인 면담 자료가 인용된 연구물’ 가운데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최대 변이(maximum variation) 표집 전략을 따른 것이다. 마일즈·후버만(M. Miles & A. Huberman)은 쿠젤(Kuzel, 1992)과 패튼(Patton, 1990)이 각각 논의한 바 있는 질적 자료 표집 전략을 종합하여 16개의 표집 전략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Miles & Huberman, 1994: 28). 그에 따르면, 최대 변이 표집 전략은 다양한 변이 양상을 기술하고 중요한 공통 패턴(pattern)을 식별하려는 질적 조사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귀농인 면접 조사를 수행한 질적 연구 8편에 수록된 구술(口述)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가운데 이 연구의 주제인 사회·경제 활동 경험에 관한 진술들만을 가려내어 395개의 텍스트 단위(chunk)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표 1). 분석 자료를 제공한 피면담자 수는 114명이었다.⁷⁾ 그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각각 60명과 54명이었다. 피면담자 가운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가 45명으로 전

7) 원래의 자료에 등장하는 모든 피면담자 수와 구술 내용의 분량은 이 연구에서 활용한 것보다 훨씬 많음을 밝혀 둔다. 인용된 텍스트 단위 수는 모두 857개였다. 귀농인이 언급한 귀농 동기,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경험담 등 다양한 화제(話題)들이 노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피면담자 본인의 사회·경제 활동 경험이 드러나지 않는 다른 화제의 면담 내용이 들어 있는 텍스트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인용한 문장이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명(人名)은 모두 가명이다. 자료 출처가 되는 선행 연구들에서도 인명은 모두 가명이지만, 출처와 이 글에서의 가명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지명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일치하지만,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실재하지 않는 명칭으로 거의 모두 바꾸었다. 피면담자의 연령은 조사 시점(時點)에서의 연령이다.

체의 39.4%를 차지했다. 고졸 이하의 학력 보유자는 27명으로 그 비율은 23.7%였다. 나머지 42명(36.9%)의 학력은 알 수 없었다. 귀농 지역, 즉 조사 시점에서의 거주지가 전라북도인 경우가 60명(52.6%)으로 가장 많았다. 2008년 이후에 귀농한 이가 34명(29.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2001년에서 2007년 사이에 귀농한 이가 29명(25.5%), 2001년 이전에 귀농한 이가 16명(14.2%)이었다. 자료에서 귀농 시기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35명(30.7%)이었다.⁸⁾

〈표 1〉 면담 자료 출처

저자	연도	제목	분석한 피면담 자 수(명)	분석한 텍스트 단위 수(개)	인용된 텍스트 단위 수(개)
강대구 외	2006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11	62	228
진양명숙	2008	젊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의 양상과 성격: 전라북도 진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9	18	24
조은정, 문정환	2011	충남 농촌 주민의 생활상 연구: 수도작 평야 지역 1개 마을을 중심으로	1	1	9
박성정 외	2012	귀농·귀촌여성의 농촌 정착 및 사회참여 지원 방안	24	76	101
이정화, 김백수	2012	귀농·귀촌인의 현장실습 교육 운영전략 개발	28	100	219
송인하	2013	생태가치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경제목적 귀농인과의 비교	16	82	184
박신규 외	2013	귀농·귀촌 여성의 전북지역 정착방안 연구	16	45	75
성지혜	2013	귀농한 가족, 귀농하지 않은 여성: 청도군 귀농 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9	11	17
계			114	395	857

8) 피면담자의 학력, 연령, 거주지, 귀농 시기 등 개인별 특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자료의 맥락을 소개한 것이다.

면담 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물에 포함된 텍스트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 분석은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의 형식을 따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⁹⁾ 고전적 내용 분석(classical content analysis)에서는 텍스트들을 변수별로 분류한 행렬표(matrix)를 가공한 후 가설을 검증하려고 그 행렬표를 양적으로 분석한다(Ryan & Bernard, 2000: 785). 그런데 이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려는 실증주의적 관심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연루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그것에 부여하는 행위자 자신의 의미 연관을 이해하려는 해석학적 관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이하의 분석을 좁은 의미의 내용 분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의 경험을 가능한 한 엄밀하고 상세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텍스트에서 출현하는 범주들과 개념들을 서로 연관시켜 이론화를 꾀하고, 다른 선입견 없이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더욱 더 자료에 근거하게 된다’(Ryan & Bernard, 2000: 782-783)는 점에서, 외려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을 따른 측면이 있다.

상당한 분량의 텍스트 단위들을 약호화(略號化, coding)하고 분류해야 했다. 그 작업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NVivo(ver. 10)이다. 텍스트 단위가 아닌 단어(word) 수준의 내용

9) 메타자료 분석(meta-data analysis)의 일종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메타자료 분석이 ① 일정한 주제 또는 문제, 가설 등을 연구 초점으로 삼아, ② 그와 관련된 기존의 여러 별개 연구들을 대상으로, ③ 사용된 각 분석방법과 그 과정상의 기본 전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④ 그들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서로 관련된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⑤ 보다 포괄적인 일반화를 시도하거나 또는 결론을 모색하는 분석’(이지훈, 1993: 269-270)임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자료를 제공한 선행 연구의 가설이나 결론 따위의 맥락을 의도적으로 사상(捨象)했다. 즉, 분석 자료들이 어떤 의도를 갖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것인지는 논외로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대 번이 표집 전략을 택한 이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메타자료 분석이 아니다.

분석에서는 약호화 작업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연구자가 각각 약호화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코헨(Cohen)의 카파 계수(K)를 산출하여 검토하기도 한다.¹⁰⁾ 그러나, 전술(前述)한 대로, 이 분석은 실증주의적 관점의 고전적 내용 분석이 아니다. 게다가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을 범주화함에 있어 모호성의 정도가 현저하게 적다고 판단하여, 카파 계수 검토 등의 과정은 생략했다.

3.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 유형과 특징

3.1. 유형

귀농 인구 증가로 인한 특정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구성 변화가 그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또는 변화 가능성)를 초래할 원인이라고 단순하게 환원하는 것은 불충분한 설명이다. 귀농이라는 사회 현상과 더불어 어떤 농촌 지역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면, 귀농인(또는 귀촌인)과 토박이 주민들이 새로이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과 그것에 배태(胚胎)된 사회·경제 활동들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¹¹⁾ 귀농인이 어떤 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행위 선

10) 카파 계수에 관해서는 코헨(Cohen, 1960)을 참고.

11) 2000년대 중반 몇몇 농촌 지역에서는 2000년대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귀농인들의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participation) 활동이 두드러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런 활동을 장려하는 시책을 펼치기도 했다. 그 같은 귀농인의 활동이 보고된 바 있는데(박문호·김정섭·허주녕, 2008; 김정섭, 2009: 543에서 재인용), 그것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 단위 개발사업(사무장, 간사, 이장), 도농교류 활동(농산촌 체험 프로그램, 산촌유학), 지역사회 조사 사업, 귀농·귀촌 지원 활동(예비 귀농자 상담 및 교육), 평생학습 지원 활동(외국어, 취미, 교양강좌), 지역사회 경관 관리, 생활협동조합, 농업생산자 조직(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산물 가공품

택은 개인의 가치 지향과 욕구, 현재 수행 중인 활동의 성과와 한계, 개인이 처한 문화적·경제적 맥락, 지역사회 내 사회 연결망의 맥락 등을 준거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한 여성 귀농인은 농업 생산 활동만으로는 현금 수입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서 마을 간사¹²⁾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름의 사회 연결망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 가정, 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나서야겠다는 인식을 얻기도 했다.

처음 귀농을 꿈꾸었을 때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사 이외에도 다른 일들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귀농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간사로 활동하면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남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들(다문화 가정, 아동 문제, 노인 복지 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 조영희, 여, 전라북도 평원군(진양명숙, 2008: 111).

귀농인은 어떤 종류의 사회·경제 활동을 수행하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면담 내용을 옹근 텍스트들을 반복해서 검토하고 약호화하였다. 귀농인들이 언급한 사회·경제 활동을 크게 여덟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농업, 농산물 가공 및 농촌 관광, 농업과 무관한 직종에서의 근로, 자원봉사, 지역사회 조직 참여, 학습, 문화·여가, 지역공동체 안에서 주민과의 일상적 상호작용 등이다. 피면담자들이 언급한 내용에서 드

생산 조직(영농조합법인), 방과 후 아동 생활 지원(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교육, 상담), 여성 농업인 상담 지원, 지역사회 도서관 운영, 노인 보건의료 지원(노인 수발, 밀반찬 지원), 영유아 보육, 문화 및 취미 동아리 활동, 교통 약자(노인, 아동) 차량 운행 지원 등.

12)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 아니다. 해당 지역에서 실천되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생겨난 직책이다.

러나는 주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다음 절에서 예시와 함께 상술(詳述)한다.¹³⁾

<표 2> 면담 자료에서 드러난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 유형과 특징

유형	특징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및 직거래의 빈도가 높음 - 농업소득만으로 생활비 마련이 어려움 - 농지, 농기계 등을 확보하기 어려움
농산물 가공 및 농촌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특성상 여성 참여가 적합하다는 의견
농업과 무관한 직종에서의 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여성 배우자가 참여 - 가계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 - 방과 후 학교, 도서관, 요양보호사, 다문화가정 지도사 등과 지역사회 서비스(communitary service) 분야에서의 유급(有給) 활동과 건설 노동, 상점 점원 등과 같이 전적으로 소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구분
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해교육, 도서관, 방범 등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의 무급(無給) 활동과 후배 귀농인 상담 및 교육 같은 귀농 관련 분야의 활동으로 구분 - 자원봉사이지만 소액의 인건비를 제공받을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의 소득 활동’ 과 사실상 구별되지 않음
지역사회 조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협의회’ 등 귀농인 단체, 여성 농업인 단체, 각종 동호회 등에 참여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교육, 영농 교육, 농산물 가공 및 농촌관광 분야 창업 교육, 기타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 참여
문화·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 서비스 시설에의 접근이 어려움 - 여성 귀농인에게 중요한 욕구 - 지역사회 단체(예: 여성농업인센터, 동호회) 활동을 통해 욕구 충족

13) 귀농인이 수행하는 사회·경제 활동의 일정한 경향을 요약하여 진술할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상당한 분량의 면담 자료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을 포착하여 진술한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할 면담 자료를 제한된 지면에 낱말이 제시할 수 없으므로 관련된 텍스트 한 단위씩을 예로 들고, 번호를 매겨 표시한다.

유형	특징
지역공동체 안에서 주민과의 일상적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태도에 대한 문화적 선입견이 작용(예: 친환경농업, 여성 귀농인의 영농 참여 등) - 영농 기술, 농지 임차 및 구매 기회, 농기계, 지원 정책사업 관련 정보 등을 얻는 중요한 사회 자본(social capital)*으로 기능 - 농업·농촌에 대한 선(先) 경험이 있을수록(예: 농촌 출신, U턴 귀농인), 일상적 관계에서 문화적 선입견 작용의 문제를 용이하게 완화하는 경향

* 이때의 '사회 자본' 개념은 퍼트남(R. Putnam)이 아니라 부르디외(P. Bourdieu)의 용례에 가깝다.

3.2. 경제 활동: 농업, 농산물 가공 및 농촌 관광, 그 밖의 농외소득활동

귀농인들의 경제 활동에 관한 면담에서 잦은 빈도로 출현하는 내용은 '농업 소득만으로는 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착지의 농업 여건에 좌우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귀농인이 농업 기반을 형성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평야 및 산간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자산이 적은 귀농인이 농업만으로 가계 유지에 충분한 현금 수입을 얻기 어렵다는 점은 공통된 상황인 듯하다.¹⁴⁾ 산간 지역에서는 농지를 둘러싸고 경합이 일어날 수 있고 귀농가의 경지 규모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다[1]. 한편, 평야 지역에서는 농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없다. 게다가 농기계 등의 자본 투자도 뒤따른다[2]. 결과적으로 농업소득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 어렵다.

[1] 농지 확보가 매우 어려워서 야산 바로 밑에 휴경지를 임차했

14) 2013년의 조사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 가구의 평균 재배면적은 0.46ha이며,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서만 작물을 재배하는 순수 자경 가구 비율은 55.7%였다(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 2014: 5).

는데, 그 곳의 경우 오전 햇빛은 잘 드는데 오후에는 옆 산의 그림자로 오후 3~4시면 그들이 들더라구요. / 양용재, 남, 46세, 전라북도 파양군(이정화·김백수, 2012: 70).

[2] 제일 힘든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농업을 위한 자본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귀농 초기부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시작했고,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의 지원 농가가 되기 위해서는 센터의 요구사항에 충족되어야 하기에 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더 많은 용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 김민홍, 남, 전라북도 서양시(이정화·김백수, 2012: 50).

이런 상황이라면 귀농인은 필연적으로 농외소득을 얻을 기회를 찾게 된다. 주로 귀농 가구의 여성 배우자가 영농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농외소득 활동에 나서(려)는 경향이 있다[3]. 때로는 귀농 가구의 남성 배우자가 농사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 농외소득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4]. 그리고 선배 귀농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이 그런 활동을 권장하기도 한다[5].

[3-1] 농촌 여성들은 농사 외에 일하고 싶어 해요.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정규직 일도 선호해요. 개인이 알아봐서 방과 후 보조행정 인력, 방과 후 강사 많이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요양보호사 하세요. 한시적인 일들을 많이 하죠.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교육 받고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여 갖고 있어요. / 원인숙, 여, 41세, 대줄, 충청남도 원종군, 2000년 귀농(박성정 외, 2012: 116).

[3-2] 저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농사일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농사가 아무리 기계로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자한테 힘든 일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데 비해 수입이 너무 적어

요. 여자들은 돈 나올 데가 더 없어요. 지금 내 월급을 농사일 해서 벌 수 있겠어요? 사실 먹고 살려면, 남편 혼자서 농사짓고 나는 밖에서 돈을 벌어야 해요. 촌에는 여자들이 직장 얻기가 쉬워요. 젊은 여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촌에는 40대도 새댁이죠.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낫죠. / 김영순, 여, 42세, 고졸, 경상북도 여초군, 2010년 귀농(성지혜, 2013: 120).

[4] 농사를 하는 사람에게 월수입을 말하라는 게 힘든 일이고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농외소득이 귀농 초기에는 더 많았습니다. 집사람이 공부방 지도비 60만 원하고, 제가 겨울에 산불 감시원으로 5개월에 400만 원 정도 받았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주말에 했습니다. 사실 농외소득과 농사 소득을 더하여서... 초기에는 농외소득으로 버티었습니다. / 지성준, 남, 42세, 충청북도 등악군, 2002년 귀농(강대구 외, 2006: 152).

[5]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답이 아닙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이미 90% 이상 현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농사짓겠다는 분이 한 분 더 있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환영하겠어요? 우리끼리 가볍게 하는 이야기인데,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또는 뭐 몇 십 대를 거쳐서 농사짓는 분들이 더 잘하지. 그렇죠! 농사해가지고는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도시에서 회사 다니면서 컴퓨터 스킬이 아주 좋은 분들은 시골에 와서 컴퓨터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이발소 하는 분들은 와서 이발소 하면 되고, 목욕탕 하시는 분들은 목욕탕 하시면 되고, 바로 그렇게 하면서 공존하고 섞여 들고, 또 기존 주민 들하고 경쟁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 영역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 고영승, 남, 59세, 고졸, 전라북도 평원군, 2007년 귀농(진양명숙, 2008: 109-110).

농업소득 저위라는 한국 농촌의 일반적 현실에서 농업 기반이 취약한 귀농 가구의 농외소득 활동 참여는 필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귀농인

스스로 간직하는 주목할 만한 전망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농업과 연관을 맺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로 농산물 가공이나 농촌관광 분야에서 여성 귀농인들의 참여 의향이나 긍정적 전망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한다는 점이다[6]. 다른 하나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경향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에서의 유급 종사자 활동을 희망하거나 실제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7]. 이는 농외소득을 얻는 동시에 소속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적(公的) 사회 활동이다. 그런 성격의 활동이 귀농인 스스로의 가치 지향 또는 귀농 동기에 부합하므로 선호한다는 입장들도 있다.

[6] 체험마을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들이 조금 더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 꾸러미라든가, 여성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꾸러미는 거의 다 여성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반찬 만들고 제철 채소내고 하는 게 여성들이 주로 다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조금씩 찾아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또 뭐 할 수 있는 게, 여기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체험거리로 다갈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뭐, 떡 만들기든, 고추장 만들기를 하든, 음식 체험을 하든, 두부 만들기를 하든, 이런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체험거리를 개발하고. / 전여성, 58세, 여, 대학원졸, 전라북도 송평군, 1998년 귀농(박성정 외, 2012: 118).

[7-1] 귀농을 하는 경우에, 두 사람이 다 전업적으로 농업 일만 해갔고는 사실은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논농사 중심의 지역에서는 자금의 회전 주기가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투자만, 계속 비용만 들어가다가 가을이 되어서야 비용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여름에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귀농을 하는 경우에, 여자들은 인제 농업만 전업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자들은 좀 직업이 필요하지 않나. 귀농하신 분들의 경우 이렇

게 여성농민센터 직원이라든가,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방과 후 교사라든가, 특기적성 교사라든가, 아니면 또 급식실 일이라든가, 행정실 일이라든가. 그런 일들, 아니면 면사무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동도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 김성자, 여, 46세, 대줄, 전라북도 동도군, 1991년 귀농(박성정 외, 2012: 115-116).

[7-2] 일자리는 사회복지 쪽이 많아요. 요양보호사, 다문화가정 지도사 같은.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교육청 쪽 일도 많고. 상담사, 방과 후 관련 일들, 영농법인 사무직도 있고. 재능을 발휘해서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격증 많이 따 두고 있어요. 일은 최저 120~150만 원은 줘야 할 수 있어요. 농촌에서 필요한 일을 만들어서 적정 임금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 남경숙, 여, 39세, 대줄, 전라북도 송남시, 2007년 귀농(박성정 외, 2012: 116).

농업소득만으로는 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농외소득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농촌 생활을 유지하려는 귀농인이 많다. 그 동기를 한 문에 설명하기는 어렵다.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귀농인들, 특히 30대 및 40대 연령층의 젊은 귀농인일수록 생태적으로 건강한 일상생활과 물화¹⁵⁾(物化)되지 않은 인간관계에 대한 바람이나 강력한 실천 지향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런 실천 지향은 농업 활동에 있어 친환경농업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8].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에 있어, 농촌 지역에 형성된 기존 출하 경로에 편입하기

15) 물화에 대한 근래의 설명으로는 악셀 호네트(A. Honneth, 2006)를 참고. “사회적 관계는 점점 더 냉정하고 계산적인 목적지향적 관계를 띠어갔다. 자신의 산물에 대한 장인적 애정은 사물을 한낱 도구적으로 처분하는 태도에 의해 분명하게 밀려나고 말았다. 주체들의 내적인 경험조차 계산적 순응의 차가운 입김에 의해 얼어갔다.”(악셀 호네트, 2006: 19).

어렵다는 사정도 있겠지만, ‘꾸러미’ 같은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도 그런 실천 지향을 보여주는 예다(9).

[8] 저희는 농약을 안 했어요. 고구마도 농약을 많이 해요. 시골은 풀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을 안 했어요. [팔 때] ‘우리는 무농약입니다’라고 알렸더니 잘 팔리더라구요. ... 농약을 안 하니깐 힘들긴 힘들어요. 그런데 제초제 문제 때문이에요. 제가 환경농업대학을 다녔어요. 그 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제초제 안 좋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했어요. / 이세중, 남, 33세, 대줄, 전라북도 평원군, 2005년 귀농(진양명숙, 2008: 116).

[9] 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관계보다도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당신들이 매달 얼마만큼의 돈을 보내 준다고 해서 그만큼의 농산물을 보내 줄 자신이 없다고 말했죠. 다만, 우리 부부가 농촌에서 땅을 살리고 물을 살리는 농사를 짓고, 그에 대한 가치에 그들이 동의하고, 그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인 지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 회원들이에요. ‘내가 너[한테] 2만 원 보내 주니까 나한테 그에 상응하는 농산물을 보내 달라’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저희가 농산물을 보내 줄 때마다 너무 고마워해요. / 조주연, 여, 54세, 대줄, 전라북도 평원군, 2005년 귀농(송인하, 2013: 164).

3.3. 사회 활동: 자원봉사, 일상적 상호작용, 지역사회 조직 참여, 학습, 문화·여가

‘지역 공동체 주민들과 더불어 산다’는 실천 지향이 뚜렷한 귀농인에게서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자원봉사는 토박이 주민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확장하고 관계의 밀도를 두텁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농촌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귀농인에 대한 평판이 형성된다. 자원봉사는 그 본래의 의도나 성과 외에도 비공식 자원동원 경로가 되기도 한다. 그런 방식으로 귀농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정착 과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10].

[10] 제가 지역에서 상호 협력하고 부조하는 것으로, ‘두꺼비 활동’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혼자 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집도 고쳐 주고 땀감도 해 주는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달에 한번씩 활동을 하는데, 급한 일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기면 두 번도 합니다.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합니다. 회원 중에서 귀농자와 원 주민의 비율은 7대3 정도 되지요. / 김희준, 남, 43세, 대졸, 전라북도 송남시, 2009년 귀농(송인하, 2013: 153-154).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 사적(私的) 사회 연결망은 단순한 친목 관계 이상의 것이다. 농지 임차, 영농기술 습득, 농기계 이용, 농산물 판로 확보, 일용 및 임시 일자리 구직 등의 경제 활동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원동원 경로이다[11].¹⁶⁾ 귀농인들은 지역사회 전체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 [12],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 귀농인에 대한 안내 및 도움[13], 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 및 지원[14] 등 여러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11-1]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봉사단체나 자율방범대 등에 스스

16) 마상진·김강호(2010)는 신규 귀농자가 고정 자본(토지, 영농 시설, 농기구), 운영 자금, 생산기술, 경영 역량, 농산물 판매 가격 정보, 시장 접근성 등을 확보하는 능력과 그가 연루된 인간관계 및 조직 활동 등의 사회 연결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증한 바 있다.

로 가입을 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한다든지, 마을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술도 한잔씩 하면서 어울리고, 모내기나 가을 수확철에 어르신들의 일손 돕기를 해서 친해진다든지, 방법이야 많이 있겠죠. 젊은 귀농자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니깐 보건소나 병원 그리고 장에 갈 때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괜찮네. 열심히 하네. 술 한잔 해.’, ‘형님, 저 농사 좀 짓게 한두 마지기 정도 알아봐 주세요.’... 자연스럽게 정보가 흘러나오게 되죠. 이것이 원주민들과 융화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평가들이 좀 나오겠죠. ‘저 녀석 쓸 만하네. 술도 괜찮게 먹고, 서글서글하네.’ 이제 그러면 정보를 조금씩 주기도 하고, 마을의 일원으로 조금은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는데, 아무래도 세월이 필요한 거죠. / 우효준, 남, 42세, 고졸, 전라북도 송남시, 2006년 귀농(송인하, 2013: 152-153).

[11-2] 처음 시골에 와서 방법대에 들어갔어요. 그 자체에 봉사정신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명목적인 거고, 실질적인 것은 사람들의 만남이죠. 방법대를 통해 소통의 장이 하나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만나서 농사 정보, 행정 보조 사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는 얘기 등을 나누면서 토론도 하게 되요. / 우효준, 남, 42세, 고졸, 전라북도 송남시, 2006년 귀농(송인하, 2013: 155).

[12]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운영을 저희 엄마들이 해요. 그래서 그런 쪽 일도 하고, 학교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여기에 와서 애를 또 하나 낳았네요. / 이정순, 여, 43세, 대졸, 전라북도 중산군, 2011년 귀농(박신규 외, 2013: 75).

[13] 마평균으로 귀농하시려는 분들에게 저희가 일주일 정도는 무료로 숙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실 분들에게 농촌 생활 경험과 필요한 정보 등을 해 주기 위해 저희 집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부부들이 거쳐 갔고, 그 중 마평에 귀농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귀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공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귀농하신 분들의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귀농하신 분들의 친분 도모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김기원, 남, 전라남도 마평군(이정화·김백수, 2012: 58).

[14] 봉사활동을 통해 혜택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누가 와서 집을 다 고쳐 줬다, 아궁이를 고쳐 줬다, 라고 어르신들이 저희 활동에 칭찬을 많이 해 주십니다. / 김희준, 남, 43세, 대졸, 전라북도 송남시, 2009년 귀농(송인하, 2013: 154).

귀농인들의 그 같은 실천 지향과 자원봉사 활동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community business), 마을 만들기, 협동 지역사회(cooperative community) 운동 등의 형태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귀농·귀촌이라는 현상이 농촌 지역사회 발전의 자조적 접근(self-help approach)과 맞물려 드러나는 것이다[15]. 이 글에서 조형(造形)하려는 ‘귀농·귀촌이 촉발하거나 촉진하는 농촌 사회의 변화’의 일부분을 그 당사자들이 선취(先取)한 사례라 할 수 있다.17)

[15] [홍동면에 있는] 어린이집도 평범한 어린이집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공동육아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들었고 그런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운영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쪽은 그나마 귀농 여건이 좋은 곳이에요. 아이들 문제로. 그래서 [여성 농업인] 센터에서 방과 후 교실도, 아마 제가 알기로, 전국의 [여성 농업인] 센터 중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는 학습 지도를 하지 않는 방과 후 교실이에요. 그러니깐 학교 측에서 안 하고, 여성 농

17) 인용한 구술 자료 [15]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에서 얻은 자료다. 홍동면의 자조적 지역사회 발전 사례를 협동조합 운동, 지역사회 학교 운동 등의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홍동면 지역의 변화를 주도한 이들 가운데 귀농인 및 귀촌인이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동면의 최근 변화를 협동 지역사회 운동의 관점에서 살펴본 사례 연구로는, 김정섭(2013)을 참고.

업인 센터에서 하는 방과 후 교실이 학습 지도, 문제집 지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취미교실로 운영되고 음악교실 담당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하니가요. 지금은 고학년들은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좀 하고요. 시골이 학습도 문제지만 다른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문화적으로요. 그런 부분들을 여성 농업인 센터가 담당해 준다면 참 좋은데, 여기는 그게 가능해요. 아이들이 수시로 생각도 못한 것 많이 만들어 오고. 여자들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여기서 요가도 했고요. 그 다음에 풍물도 했고, 홈패션 이런 것들이 내부에 있는 지역 구성원들만으로도 선생님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홈패션은 정말 그걸로 몇 십 년 일하시다 귀농하신 분이 계셔서 정말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 분이 양복 만드시던 분이랴 옷을 굉장히 쉽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이 돼요. 홍성은 인력이 돼요. 인력이 중요한 힘 이잖아요. 홍성은 그런 부분에서도 문화적인 것이나 물론 도시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도시보다 장점은 자체 내 인력으로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주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되고 이런 구조도 가지고 있고, 자체 내 인력으로... 외부 강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부 강사에 의해 이런 것들이 구성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저력이라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홍성이 내년에 지역 학교 얘기도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 순환 내지는 지역 중심 사회의 좋은 토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들이 많아요. 기존에는 다른 귀농지도 많이 돌아보곤 했는데, 얘기 낱고 나서는 땅값만 해결된다면 이 지역에서 남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동네에 아이들이 보이는 게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 노유정, 여, 35세, 충청남도 홍동면, 1998년 귀농(강대구 외, 2006: 144-145).

지역사회 조직에의 참여는 귀농인이 얼마나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리고 귀농인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적 활동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혁신적 인적 자원 유입론’의

가정, 즉 '지역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농업 외 부문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인적 자원이 농촌에 유입되면 그만큼 지역사회의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역량이 증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사회적 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지역혁신의 가능성 또한 커진다'(김정섭 외, 2012: 29)는 가정이 맞다 하더라도, 결국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주된 매체적 과정은 '지역사회 조직에의 참여'다.

이론적으로는, 귀농인이 농촌 지역사회의 기성(既成) 조직에 참여하거나 귀농인과 토박이 주민이 함께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¹⁸⁾ 귀농인들이 두각을 드러내는 비즈니스 활동으로 알려지고 있는 농촌체험관광 분야의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귀농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외부와의 사회 연결망이 농촌체험관광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관계적 자산(relational asset)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자체가 공공재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농촌 어메니티(amenities)에 기초하기 마련이므로, 그 어메니티를 공유하면서 관리하는 주체인 지역사회와 비즈니스 주체인 귀농인은 서로 연루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연루의 유력한 방식이 지역사회 조직이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여러 유형의 조직이 있을 텐데, 귀농인이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지방자치단체 및 귀농·귀촌과의 관련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8) 이와 관련하여, 나는 귀농인 및 귀촌인이 학습 집단을 형성하면서 지역 내외에 맺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유형을 '지역사회 동화형', '동화되지 않음', '혁신적 연결망' 등으로 나누는 이념형 구분을 제시한 바 있다. 상세한 설명으로는, 김정섭 외(2012: 29-30)를 참고.

〈표 3〉 귀농인의 입장에서 본 지역사회 조직 유형

구분	자생적 민간조직		지자체와 연결된 민간 조직
일반 지역사회 조직	[A형: 마을조직] 마을 대동회, 계, 청년회, 부녀회 등	[B형: 사업체, 사회단체] 농업법인, 협동조합, 시 민사회단체, 농민단체 등	[D형: 학습조직, 직능단체]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연구회, 4-H, 농업인 대학 등
귀농·귀촌 관련 지역사회 조직	[C형: 자생적 귀농인 조직] 지역에 소재한 귀농 교육 단체(예: 실상사 귀농학교, 풀무학교 전공부 등), 귀농·귀촌 시책과 무관한 귀농인 자조 조직		[E형: 시책 연계 조직]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과 관련 하여 결성한 귀농인 협의회, 귀농·귀촌 지원센터 등

면담 자료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귀농인의 경우 ‘일반 지역사회 조직’에 비해 ‘귀농·귀촌 관련 지역사회 조직’에서의 활동을 언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귀농·귀촌 관련 조직 가운데서도 자생적 조직(C형) 활동이 정착 과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의견이 많다[16]. 물론, 자생적 귀농인 조직 또는 귀농인 모임 자체가 지역사회에 늘 긍정적으로만 작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른바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부정적 인식을 낳는 빌미가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귀농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조직 활동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높은 밀도의 사적 사회 연결망이 형성된 농촌 지역사회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일정 부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도 드러난다[17].

[16]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여건과 처지에서 이런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함께 있다는 것이 농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귀농이라 해도 목적과 거기에 대한 어떤 철학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있다는 것이 힘이고 저 분들이 수년간 귀농 생활을 해 왔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 같은 게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과 1년에 몇 차례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농사에 대한 정보, 한해 결실에 대한 얘기, 삶에 대한 얘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철학에 대한 문제, 세상에 대한 얘기들을 모여서 토론하고 그러죠. / 박행규, 남, 48세, 대줄, 전라북도 평원군, 2008년 귀농(송인하, 2013: 150).

[17] 주민들의 과도한 관심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소문이 많은 농촌이란 걸 알지만, 이것이 악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농·귀촌인들이 이것을 겁낼수록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 최선영, 여, 40세, 대줄, 전라북도 평원군, 2009년 귀농(박성정 외, 2012: 88).

지역사회 조직 활동마다 고유의 목적과 관련하여 참여자 개인이 참여의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지만, 여성 귀농인에게 지역사회 조직 활동은 다른 차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문화·여가 활동의 기회나 사적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남성 귀농인에 비해 더 큰 단절을 겪는 여성 귀농인에게, 그들의 모임은 일종의 동아리 성격을 가지며 여가를 활용하거나 친분관계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18]. 지역에 따라서는 귀농인 단체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성 조직인 여성 농민회 같은 사회단체가 그런 조직이 되기도 한다[19]. 모든 유형의 지역사회 조직에 있어 여성 귀농인은 배제되기 쉬운 입장에 있다. 공적 기능을 주로 하는 귀농·귀촌 관련 시책 연계형 조직(E형)에서조차 남성 중심의 사회 연결망이 지배적이다[20]. 남성 귀농인의 지역사회 조직 참여는 지역사회에 동화되고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 중요한 매체적 활동이 될 것이지만, 여성 귀농인의 경우 그런 효과와 더불어 정착 과정의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고충을 극복하는 사회심리학적 계기로서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

[18] 먼 내에 거주하는 여성 귀농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바느질 모임’인데 농사가 바쁘지 않을 때 같이 모여 바느질하면서 수다를 떠는 모임인데요. ‘바느질 모임에 동네 아낙들도 같이 하자고 할까? 우리끼리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끼리 모여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같고요.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서 내려와서 살면서 힘든 걸 토해 낼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바느질 모임을 했죠. 꽤 됐어요. / 조주연, 여, 54세, 대줄, 전라북도 평원군, 2005년 귀농(송인하, 2013: 149).

[19] 제가 여성 농민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 시집 와서는 바깥 활동도 많이 안 했고, 육아에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 남자들은 차 몰고 나가면 술도 한잔 하고 기술도 배우러 가고 교육도 다니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고 와요. 안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정보에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참 갑갑하더라고요. 여성 농민회에서는 정보가 많이 오니까, 그런 정보도 전달하고, 수다를 떠어도 여기 와서 얘기하면 수다 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곳. 회원들이 교육도 하고, 견학도 가고, 아이들 교육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고부 갈등도 있으면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남편 흉도 보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하여튼, 모임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성진시에 지금 그런 먼 지회가 차츰차츰 생겨서 다섯 개가 지금 되었거든요. 여성 농민회로서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 많이 해결하고 노력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 박인정, 여, 42세, 대줄, 경상북도 성진시, 1998년 귀농(박성정 외, 2012: 119).

[20] 창업도 그렇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상담, 그런 것을 해 주는 중간조직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귀농귀촌협의회가 그 역할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귀농귀촌협의회가 남성들의 정착을 돕는 남성들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분과가 또 필요해요. 어쨌든 중간조직이 좀 안정적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 분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여성 분과 만 들어서 돌아가게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에요. / 남귀분, 여, 귀농 관련 업무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박성정 외, 2012: 129).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에 귀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나 이주한 후 정착 과정에서나, 귀농인에게 학습은 중요한 사회 활동이다. 귀농을 준비하기 위한 학습이 이주 전에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 준비’를 돕는 민간단체의 교육 과정에 참석하거나 선도농가 현장실습(인턴제)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농가에 머물며 영농기술을 배우기도 한다. 이주 후에 귀농인들이 참여하는 학습 프로그램의 내용과 학습 과정 운영 주체는 다양하다. 농업기술센터나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 과정, 민간농업인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농협 또는 인터넷, 선배 귀농인 등 다양한 학습 장소들이 있다. 그런데 뚜렷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을 내 농가나 작목반 구성원 등 지역사회 내의 여타 농업인과 함께하는 비형식적이고(informal)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계기라는 점이다[21].

[21-1] 기술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마을 어른들께 물어서 배우고. 가만히 있으면 와서 가르쳐 줘요. 답답하니깐. 잘 가르쳐 주시고 저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구요. 그리고 이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배워 오기도 하고요. / 장지혁, 남, 62세, 대줄, 경기도 대동시, 1996년 귀농(강대구 외, 2006: 134).

[21-1] 제가 처음에 하우스 시작하면서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갔어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을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랬더니 여기서 차로 40분 걸리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소개 받았어요. 꽤 멀어요. 근 1년을 왔다갔다 하면서 그 분을 통해서 기술을 배운 거죠.

/ 박근화, 남, 47세, 중졸, 전라북도 송남시, 2004년 귀농(송인하, 2013: 176).

귀농인과 토박이 주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상적 상호작용은, 그들이 생애사 전체에 걸쳐 각기 다른 사회적 장(場)에서 겪은 생활 경험을 통해 형성한 아비투스(habitus)¹⁹⁾, 생활양식(lifestyle), 영농양식(farming style) 등의 차이점이 노출되고 갈등으로 표면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귀농인과 토박이 주민 사이의 갈등은 일견 문화접변(acculturation)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상당수의 젊은 귀농인들이 품은 귀농 동기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아비투스의 병치(並置)에서 오는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나올 듯하다. 즉, 토박이 농민의 아비투스가 대체로 생계 전략으로서의 영농활동을 탈피하여 시장을 의식하며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상업농으로 변모·적응해 온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친환경농업 또는 생태지향적 가치관을 갖춘 젊은 귀농인들의 아비투스는 ‘성장 신화의 저주가 가득한 도시 자본주의 체계’(김영민, 2011: 211)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지향이 함께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²⁰⁾

한편,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신의 영농활동에 단지 가계수입을 얻으려

19) 피에르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는 일정 방식의 행동과 인지(認知), 감지(感知)와 판단의 성향체계로서 개인의 역사 속에서 개인들에 의해서 내면화(구조화)되고 육화(肉化)되며 또한 일상적 실천들을 구조화하는 양면적 메커니즘”(피에르 부르디외, 1995a: 11)이라고 개념화한다. 그는 또 다른 저술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알제리의 모순』에서 자본주의 화폐 경제체계가 확립되던 초기 단계의 20세기 전반부 알제리 사회에서 ‘외부에서 강요된 경제적 세계(cosmos)와 그 세계의 근저에 깔린 지향성(intention)을 새롭게 따를 용의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경제 주체들 간의 드라마틱한 대결’(피에르 부르디외, 1995b: 19)을 아비투스 개념을 동원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 저술에서 새로운 경제적 세계에 저항하는 경제 주체란 주로 자본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그래서 자본주의적 아비투스를 자신의 신체에 기입하지 않은 알제리 농민들이다.

20) 아비투스에 초점을 두고 귀농인의 생활을 고찰할 수도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상설(詳說)하지 않는다.

는 목적합리적 행위로서의 의미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생활양식을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만 의지하여 설명할 수 없듯이, '영농하면서 생활하는 삶'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우르는 문화론적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21) 그러한 영농양식의 차이점이 일상적 상호작용에서의 불편함을 낳고 귀농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심리적 비용을 치르게 한다 [22].

[22-1] 생활이나 기타 것들은 이미 각오를 했기에 어려운 게 없었는데, 주민들과의 동화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기 주민 사람들은 관행농을 하는데 우리는 유기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을 사

- 21) 그런 목적으로 개념화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 '영농양식'이다. "영농활동을 이루는 자원 동원과 그 자원을 가치로 변화시키는 전환 과정은 모두 농업경영체 외부에 존재하는 행위자나 제도와 관계를 맺는다. 농업경영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적인 요소(행위자 또는 제도)는 시장일 수도, 정책당국일 수도,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어떤 주체일 수도 있다. 그 같은 외부적인 조건들이 그 자체로 영농활동이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양한 영농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맥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략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회적 행위자로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영농활동을 시장이나 기술과 같은 외부적 실체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을 스스로 규정하거나 또는 그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누구와 거래할 것인가, 어떤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 등과 같은 문제들이 무작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전략적 판단의 대상이다. 그러한 판단 과정은 지역의 역사, 생태적 조건, 지역에서 지배적인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정치·경제적 관계 등의 조건들 속에 배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략적 판단을 통해 농업경영체들의 입장이 만들어지며, 농업경영체가 맺고 있는 생산과 관련된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지며, 농업경영체의 장래 변화에 대한 기획이나 의사결정이 조건화된다. (중략) 하지만 '영농양식'이라는 개념이 몇 가지 변수들의 단순한 선형결합을 통해서 설명되거나 또는 구조방정식 같은 형태로 짜여질 수 있는 구성물이나 과정들의 결합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 맥락의 특수성과 그러한 맥락을 해석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농민들의 의미 부여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다."(김정섭, 2005: 61-63). 영농양식 연구에 관한 기초적 소개 혹은 사례 연구로는 반데플루호(J.D. Van der Ploeg, 1994), 벤츄라와 반데멜렌(F. Ventura & H. Van der Meulen, 1994), 왓모어(S. Whatmore, 1994), 코만도르(M. Commandeur, 2003) 등을 참고.

람들이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유기농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언짢게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기농으로 재배했을 때 작물보다도 잡초가 더 많았어요. 이러한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저희가 부자라서 그렇게 해도 신경 안 쓴다고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먹고살 게 많아서 유기농을 한다’고 생각하여서 처음에는 엄청 따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이러한 점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과의 동화가 가장 어려웠고, 나머지는 그렇게 힘든 점이 없었어요. / 유직상, 남, 42세, 경상북도 진강군, 2000년 귀농(강대구 외, 2006: 149).

[22-2] 많은 이질감을 느끼더라고요. 같은 관행농업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 농사하는 것하고 어르신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와서 농사를 지을 때는 어른들 말을 들어야 해요. 처음에는. 그걸 역행을 해, 다른 방법을 끌어들이면, 힘들어요. 같은 고추를 짓더라도 방법을 조금 틀리게 해 갖고, 이게 그 방법을 써 갖고 젊은 사람들이 잘 됐으면 괜찮아. 근데 거의 처음에는 실패해요. 그러면 마을 어른들은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말해요. 첫 마디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 방법으로 가요. 어르신들이 하는 방법으로. 한 번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나도 실패 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계속 말 안 듣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갈등이 심해. 지금도요. 깃잎농사, 이걸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친환경농업]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어르신은 그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도 그런 게 심하드라고요. 그니까 그런 친환경이나 쫄 선진 농법, 그리 가야 되는데. 가기가 상당히, [마을의] 분위기가 힘들어요. / 한선근, 남, 전라북도 평원군(진양명숙, 2008: 119).

4. 결론

귀농인 면담 조사를 실시한 선행 연구들이 인용한 구술 자료들을 재해

석해 보았다.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는 귀농인들의 행태(behavior)를 가설 검증 차원에서 분석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즉, 일반화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인용한 여러 사례들과 해석이 어느 농촌 지역에서나 어떤 귀농인에서나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 경향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그보다는 귀농인이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농촌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이해'하려 시도하고, 귀농·귀촌이라는 사회 현상이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갖는 독특한 성격을 기술하려고 노력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화된 전업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귀농인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는 것을 대부분의 귀농인들이 알고 있다. 몰랐더라도 정착 초기 과정에서 알게 된다. 그 결과, 농촌으로의 이주 직후 농업 외의 경제 활동에 참여할 강력한 동기가 주어진다. 무엇보다 가계 유지를 위한 현금 수입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 동기로 참여하는 경제 활동 분야를 '농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농산물 가공 및 농촌 관광', '지역사회 서비스', '상업·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역사회 내 기존 사업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농외소득 활동에 참여하는 귀농인은 대체로 여성이다. 향후, 귀농 가구를 포함한 농가의 '다각적 경제 활동(pluri-activity)'에 연구와 정책 분야의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귀농인의 농촌 유입이 전국 수준에서 양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점업을 영위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는 귀농 가구들이 정착에 성공한다면 그 자체로 지역경제의 다각화(diversification)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거꾸로, 경제활동이 다각화된, 즉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

농촌 지역사회가 귀농 가구의 정착에 유리한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셋째, 귀농 가구(특히, 여성 가구원이 있는)의 농외 경제 활동 참여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 문화·여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사례들이 출현하고 있다. 전라북도 진안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중요한 계기를 만든 곳도 있고,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처럼 주민의 자조적 지역사회 발전 노력이 그 계기가 된 곳도 있다. 이런 사례들은, 귀농인의 농외 경제활동 참여가 단지 가구의 생계전략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연관을 맺는 중요한 고리임을 보여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등 여러 언표를 동반하며 나타나는 최근의 지역사회 발전 전략을 실천할 때 귀농인 또는 귀촌인이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개연성을 보여준다.

넷째, 자원봉사 활동이나 여러 유형의 지역사회 조직 참여 활동은 귀농인의 정착 과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농촌 지역의 사회 자본 증진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적 활동이다. 그러나 농촌 지역사회에 문화적으로 동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탓에 귀농인의 지역사회 조직 참여는 단기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귀농인들끼리의 모임이나 조직에 참여하는 빈도에 비하면 기성의 지역사회 조직에 참여하는 빈도는 훨씬 낮다.

다섯째, 귀농인의 지역사회 조직 참여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귀농 과정에서 개인의 사회 연결망은 급격히 변화하기 마련인데, 이 때 여성 귀농인이 남성 귀농인에 비해 더 많은 단절과 곤경을 경험한다. 여성 귀농인의 지역사회 조직 참여나 사적 사회 연결망에의 편입 문제는 귀농·귀촌 정책이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귀농인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경험의 폭은 매우 넓을 것이다. 그 가운데 아주 일부분을 살펴본 이 연구에 기초하여 귀농·귀촌이라는 사회

현상이 농촌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일'에 비유될 수 있다. 연구의 한계를 몇 가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귀농인이 정착 과정에서 얻는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는 귀농 동거나 그 배경에 놓여 있을 농업 혹은 농촌에 대한 가치관 등 개인의 생애사적 경험들과 결부되어 있을 테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을 여덟 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각의 범주들을 다시 하위 범주로 나누어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만큼 구술 자료들은 매우 풍부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게다가 자료 가운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한 귀농인들의 경험, 해석, 평가 등의 언급이 많았음에도 분석하지 않았다. 분석 방법 측면에서는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을 분류하고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보는 정도였을 뿐이다. 귀농 전 경력이나 가구 상황 혹은 귀농한 지역의 특징 같은 조건들과 사회·경제 활동의 내용 및 그것에 대한 귀농인 자신의 해석 등을 연결해보고 어느 정도의 패턴을 발견하여 도식(scheme)으로 정형화하는 방식의 분석도 하지 않았다. 구술 자료들은 모두 귀농인을 면담한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한 2차 자료이므로 그 출처가 된 선행 연구들의 맥락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분석할 때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하나의 단답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정열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부조리 일색으로 점철되었거나 이치 없는 잡음들로 웅웅거리는 불협화음도 아니다(김영민, 1996: 148). 귀농이라는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인과론으로는 쉬이 설명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맥락들 위에 얹혀 있다. 귀농인의 정착 과정 경험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이 글에서 시도한 해석학적 접근의 범위는 아주 제한된 것이다. 이후에라도 귀농인들이 경험하는 농촌 지역

사회 안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풍부하고 광범위한 질적 연구가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글을 맺는다.

■ 참고 문헌 ■

- 장대규, 김경남, 김민수, 이응, & 변규식. (2006).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농림부.
- 김영민. (1996). *컨텍스트로, 패턴으로*. 문학과지성사.
- 김영민. (2011). *세속의 어긋남과 어긋남의 인문학*. 글항아리.
- 김정섭. (2005). *고추 재배 농가들의 영농양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섭. (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533-557.
- 김정섭. (2013). 농촌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흥동면 사례 연구. *농촌사회*, 23(2), 173-223.
- 김정섭, & 김광수. (2011). 귀농·귀촌 동향과 지역의 대응 방안. *농업전망 2011: 농업·농촌과 농식품산업 - 새로운 시장과 기회*, 268-29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임지은. (2012). *귀농·귀촌 정책 및 교육 체계화 방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마상진, & 김강호. (2010). 신규 취농 진입장애 요인과 영농 성과의 구조적 관계. *농촌경제*, 33(4), 1-18.
- 박문호, 김정섭, & 허주녕. (2008). *농어촌 뉴타운 공동체 조성·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정, 이선주, 진명숙, & 장희영. (2012). *귀농·귀촌 여성의 농촌 정착 및 사회참여 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신규, 조경옥, & 조아영. (2013). *귀농·귀촌 여성의 전북지역 정착방안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 성지혜. (2013). 귀농한 가족, 귀농하지 않은 여성: 청도군 귀농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농촌사회*, 23(2), 92-138.
- 송인하. (2013). *생태가치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경제목적 귀농인과 의 비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악셀 호네트. (2006). *물화: 인정이론적 탐구*. 강병호 옮김. 나남출판.
- 이정화, & 김백수. (2012). *귀농·귀촌인의 현장실습 교육 운영전략 개발*.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

- 이지훈. (1993). 사회과학의 메타분석방법론. 충북대학교 출판부.
- 조은정, & 문정환. (2011). 충남 농촌 주민의 생활상 연구: 수도권 평야지역 1개 마을을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 진양명숙. (2008). 젊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의 양상과 성격: 전라북도 진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6(4), 105-131.
- 통계청, &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3년 귀농·귀촌인 통계 보도자료(2014년 3월 20일자).
- 피에르 부르디외. (1995a).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옮김. 새물결.
- 피에르 부르디외. (1995b).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알제리의 모순. 최종철 옮김. 동문선.
- Cohen, J. (1960). A coefficient of agreement for nominal sca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 37-48.
- Commandeur, M. (2003). *Styles of Pig Farming: A Techno-Sociological Inquiry of Processes and Constructions in Twente and The Achterhoek*. Ph.D. Thesis, Wageningen University.
- Kuzel, A. J. (1992). Sampling in qualitative inquiry. In B. F. Crabtree & W. L. Miller(Eds.), *Doing qualitative research*(pp.31-44), Research Methods for Primary Care Series, Vol.3. CA: Sage.
- Miles, M. & Huberman. A.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London: Sage.
- Patton. M.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CA: Sage.
- Ryan, G.W. & Bernard. H.R. (2000).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methods. In N. K. Denzin & Y. S.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769-802). CA: Sage.
- Van der Ploeg, J. D. (1994). Styles of Farming: an Introductory Note on Concepts and Methodology. In N. Long & J. D. Van der Ploeg(Eds.), *BORN FROM WITHIN: Practice and Perspectives of Endogenous Rural Development*(pp.7-27). Assen: Van Gorcum.
- Ventura, F. & Van der Meulen, H. (1994). Transformation and Consumption of High-Quality Meat: the Case of Chianina Meat in Umbria, Italy. In N. Long & J. D. Van

der Ploeg(Eds.), *BORN FROM WITHIN: Practice and Perspectives of Endogenous Rural Development*(pp.128-159). Assen: Van Gorcum.

Whatmore, S. (1994). Farm Household Strategies and Styles of Farming: Assessing the Utility of Farm Typologies. In N. Long & J. D. Van der Ploeg(Eds.), *BORN FROM WITHIN: Practice and Perspectives of Endogenous Rural Development*(pp.31-37). Assen: Van Gorcum.

Received 09 August 2014; Revised 10 September 2014; Accepted 20 September 2014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by Immigrant Farm Households

Jeong-Seop Kim

Korean Rural Economic Institute, 117-3 Hoegi-Ro, Dongdaemun-Gu,
Seoul, 130-710, Republic of Korea

Abstract

Immigrant farmers work in various social and economic fields of activity, settling in their rural community. In this study, I inquired into the way of acting of immigrant farmers, based on the texts which were made in the precedent studies. The texts were transcriptions that were made by interviews with immigrant farmers. I classified immigrant farmers' activities into 8 groups that were related to: farming, nonfarm business, off-farm business, volunteering, participating in community organization, lifelong learning, leisure and social interaction in everyday life. And, I tried to capture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ose activities. The implications from this analysis are as followings: 1) most of immigrant farmers have small family farm so that they need nonfarm or off-farm jobs, 2) pluri-activities of immigrant farm households can contribute to their community's economic viability, 3) their economic activities should be observed carefully in the perspective of self-help approach in community development as well as farm households' livelihood strategy, 4) immigrant farmers have many difficulties to participate in community, nevertheless community participation will improve the social capital, 5) gender-sensitive policy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Immigrant Farmer, Rural Community, Return to Farm



Jeong-Seop Kim is a senior research fellow of Korean Rural Economic Institute, Seoul,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are primarily in the area of rural development policy, with an emphasis on endogenous development, social exclusion and rurality.

Address: (130-710) 117-3 Hoegi-Ro, Dongdaemun-Gu, Seoul, South Korea
e-mail) jskkjs@krei.re.kr, phone) 82-2-3299-4252